

자비의술 펼치는 약사여래들

바라밀현장

병원불자연합회 의료봉사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중 하나인 경북 구미시 선산을 습례리, 13일 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가 선산을 예산초등학교 교사에 마련한 임시 진료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료진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지역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약해서 맵고 짠 음식과 커피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돼요. 계속 그렇게 드시다가는 큰일입니다. 제 말 잘 알아 들으셨죠? 할아버지는 건강하셔서 음식만 조심하시면 아마 10년도 더 사실 수 있어요."

평소 눈이 침침하고 아팠던 조화재(75) 할아버지가 예산초등학교에서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었다. 명달아 받은 내과검진에서 김명태 교수(경희의료원)에게 음식 조심하라는 당부를 들었다.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되기에 병원

갈 업무도 내지 못한다"는 이윤옥(63)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료 의사의 두 손을 꼭 잡는다.

이날 의료봉사에 나선 병원불자연합회 회원들은 노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정에서 스스로 병을 돌아볼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줘 환자들에게 친절하다는 평을 들었다.

하루 전 구미 영명사에서 참선, 108대참회 등 철야정진 수련법회를 가진 병원불자연합회 회원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진료에 몰두했다. 의료 봉사는 내과, 안과, 치과, 한방과 등 기본적인 진료 외에도 심전도, 임상병리, 초음파 검사까지 이뤄져 거의 하나의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 검진이 이뤄졌다.

서울에서 부모님을 따라온 초등학교 교사 리순들의 안내봉사로 일사분란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성영모(13, 증산초교), 성예선(10, 증산초교), 조형빈(13, 증곡초교), 양규범(9, 수락초교) 등 네 명의 아이들은 걷기 힘든 할머니를 은 부축도 하고, 눈이 어두운 할아버지를 직



13일 선산 예산초등학교에서 경희의료원 김재명 교수가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인과진료를 하고 있다.

접 손을 이끌고 진료소까지 안내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자 어르신들은 이들 아이들이 대견스러워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였다.

성영모, 성예선 두 남매와 함께 무료 진료 봉사를 나온 김달순(43, 국립의료원 간호사)

기본 진료 외 초음파까지 종합병원 못지않아 초등학생 안내봉사에 어르신들 눈물 글썽

씨는 "아이들에게 봉사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싶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같이 온다"고 말했다.

병원불자연합회 임종중 총무는 "농촌의 노인들은 거동이 힘들어 어다가 심하게 아프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조애나 메이지 (F)

세상·나, 하나란 '시스템이론' 제창

"생명과학을 통해 드러난 시스템이론은 인류의 오래된 가르침들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즉 지구는 살아있으며, 마음은 없는 곳이 없으며, 모든 생명체가 이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관념들을 변화시켜 소중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믿음을 준다."('살아있는 시스템(Living Systems)' 중)

연기론을 강조하는 메이지의 '일반 시스템이론 (General Systems Theory)'은 세상을 나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모든 것이 인드라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에 세상이 아프면 내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때 세상을 내 몸처럼, 내 연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모든 존재로 향할 때 숲속의 나무를 지키려고 전기톱에 맞서 나무에 몸을 묶을 수 있으며,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그린피스(국제적인 환경단체)의 보살들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의 자이는 점점 녹색 자아가 되어간다"고 표현했다.

메이지의 시스템이론의 통찰로부터 지구에 대한 우리의 관념마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정의한 '가이아 이론(Gaia theory)'이 대표적이다. '가이아'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을 가리키는 말로서, 지구를 뜻한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J.러브록이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저서를 통해 주장한 이 이론에 따르면, '가이아'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해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로서,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현재 이 이론은 인류의 생존과 직면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애나 메이지는 시스템이론을 토대로 핵위기 시대의 심리학적 정신적 문제들, 생태학적 각성, 불교와 현대



조애나메이지

서 그들의 절망에 공감하고, 그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반핵운동을 벌여왔다. 인류의 공멸을 가져오는 대량 살상무기의 재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모든 생명체의 적은 인간이라면, '가이아'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해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로서,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현재 이 이론은 인류의 생존과 직면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애나 메이지는 시스템이론을 토대로 핵위기 시대의 심리학적 정신적 문제들, 생태학적 각성, 불교와 현대



병원 불자연합회 김주호 회장
이웃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과 함께 '중생이 아프므로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보살정신을 따라 바라밀행을 닦고 있습니다."

병원불자연합회 김주호 회장(57, 국립서울병

원 간호과장)은 "우리가 가진 의술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시행"이라며 "매년 봄, 가을 두차례 진행되는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정례화 하여 보다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6차 봉사부터는 사찰에서 수련대회를 병행하고 다음날 의료봉사를 갖게 되며, 회원들의 호응도 좋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수련대회와 의료봉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호 회장은 "병원불자연합회가 체계적인 신행과 환자 포교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며 "의료봉사활동이 자비사상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옛날 중국에 한 노인이 있었다. 어찌나 수염이 근엄하고 우아한지 보는 사람마다 감탄했다. 그 노인의 수염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마침내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그 노인을 불렀다. 그리고는 "나도 그대처럼 훌륭한 수염을 소유하고 싶으니 수염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왕에게 말했다. 그 이유는 자신은 한번도 수염을 기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 본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저 살다보니 어느덧 이렇게 수염이 스스로 자라

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왕은 그렇다만 잠잘 때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도 알려달라고 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는지, 아니면 이불 밖에다 내놓고 자는지가 궁금하다

마음비추기

조작하는 마음 버리고 이대로

시련과 허전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염을 이불 속으로 들여왔다. 답답하고 성가셨다. 이번에는 옆으로 자보았다. 거북하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노인은 수염을 어떻게 할지 몰라 몸을 뒤척이며

자면서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자는지를 확인한 후 알려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밤이 되어 노인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는 턱을 수염과 함께 이불 밖으로 내놓았다. 노인은 턱이

뻘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난 노인은 크게 탄식하였다. 수염이 구겨지고 망가진 모습들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행하는 인위적인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수행이란 짓고 부수는 마음을 그치고 바른대로 생각하고 바른대로 말하고 바른대로 행동하는 그들을 벗어나는 것이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못 하려고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대로가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조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쉬는 것이다.

지금 부족한 없이 작용하고 있는 당체를 깨닫기만 하면 아무일이 없는데도, 여러가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만 상(相)을 따라 업을 짓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적언(유마선원장)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병체 산후바람 당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관절염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빠지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후에 복용금지

발명자 : 민족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3시간만에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제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당신도 영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기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 분 특별 상담

무병·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병이나 기위놀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자신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 의 빛을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인佛字체'

반야심경삼품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법명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 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후사)

전통반야심경·전통시경 전수

사립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대학교 수석 무료 직업지도(배우 겸요원)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 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진류·지자기의 유행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약용,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수맥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행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법진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진류 유류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스님들에게는 실비로 차매에 드립니다.

유행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